



중국 대학의 세계화, 211공정계획

최영표 | 동신대 중국어학과 교수

I. 211 공정계획 추진의 배경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모택동을 위시한 국내파 공산당이 건국한 나라이다. 따라서 건국 후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과 차별화하여 중국에 맞는 사회주의 체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갈등을 겪어왔다. 중국의 사회주의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떠한 모습으로 건설할 것인가에 대해 지도층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여 시대별로 곡절이 많았던 것이다. 지금까지의 사회 변천과정을 보면, 정치적인 계급투쟁을 우선하는 시기가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생산력 제고를 통한 경제성장을 우선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주기적으로 나타났었다.

전자가 중시될 때의 교육은 평등이념 실현과 정치적인 계급투쟁을 우선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문화혁명시기가 이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는 소수의 우수 대학을 별도로 육성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다. 이에 비해 후자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는 경제발전을 우선하게 되어, 교육이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 수단으로 중시되었다. 그래서인지 소수의 우수 대학을 육성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왔다. 중국에서는 이들 소수의 우수 대학을 '중점학교'라고

이름하고 있다.

오늘의 중국은 실사구시를 기반으로 한 전대미문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실험하고 있다. 전통적인 사회주의 경제제도인 계획경제에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접목시켜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이름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중국 사회주의 발전단계로 볼 때 지금은 초급단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회 생산력을 제고하는 것이 당면 과제이어서 경제발전에 유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변화로 문화혁명 시대에 폐지하였던 중점학교 제도를 1970년대 말에 서둘러 복구한 후 일련의 과정을 거쳐 1992년에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공식화 할 즈음에 과거의 중점학교 제도를 새로운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고자 하게 되었다. 1991년 12월 교육부(당시 국가교육위원회), 국가 계획위원회, 재정부가 합동으로 "일부 중점대학과 중점학과를 육성하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국무원에 제출하게 되었는데 이 문서에 처음으로 '211 공정계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어서 1992년 8월에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이 계획을 논의하여 원칙적인 동의가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1993년 2월에 공포한 교육개혁 문서인 "중국교육개혁과 발전강요"에 211공정계

“

‘211공정사업’은 기본적으로 대학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중점학과를 새롭게 발전시키며 공공 서비스 체제를 건설하는 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학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기초사업적인 성격,
중점학과 건설은 사업의 핵심으로서 교육, 연구 수준을 개선하는 주요 지표,
공공 서비스 체제는 중점 육성되는 대학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서비스망을 조직·제공하여 전체 대학의 기초설비 수준,
교육 수준 그리고 교육의 효율을 개선하는데 기여한다는 의미를 띠고 있다.

”

획의 주요 내용이 천명되었다.

『세계적인 신기술 혁명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의 힘을 모아 약 100개의 대학과 일부 중점학과를 육성한다. 그리고 21세기 초에 일부 대학과 학과의 교육의 질, 과학 연구, 경영이 세계 선진 수준에 도달하도록 한다.』

이어서 1993년 7월 15일 211공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일부 대학과 중점학과를 중점 육성하는 문제에 관한 의견”이라는 법령을 공포하였으며, 동년 8월에는 중앙에서 특별회계로 인민폐 3억 원(한화 480억 원에 해당함)을 지출하면서 지방과 주관 부서에서도 재정을 출연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1995년 11월에는 ‘211공정 총체건설계획’을 발표하여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일정을 밝혔다.

II. 211 공정계획의 목표와 내용

1995년에 발표한 총체건설계획에서 제시한 211공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세기를 대비해 95기간(1996~2000년)에 일부 대학과 중점학과를 집중 육성한다. 이후 몇 년간

의 노력을 거쳐 약 100개 대학과 일부 중점학과와 교육, 연구, 경영수준 및 효율을 크게 개선한다. 이들 대학의 교육체제, 특히 경영체제를 개혁하여 국내 고급인력 양성과 경제, 사회 발전의 주요 기지가 되게 한다. 이 중 몇 개 중점대학과 중점학과를 국제 선진 수준에 도달시키고, 기타 대부분 학교의 교육 여건을 크게 개선하여 인력 양성과 과학연구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 지역과 산업 발전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한다. 선정된 모든 대학을 국내 선진 수준에 도달시켜 중국 대학의 근간을 형성하고, 이들의 시범적인 개혁활동을 통해 일반 대학들의 개혁을 추동하도록 한다.』

‘211공정사업’은 기본적으로 대학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중점학과를 새롭게 발전시키며 공공 서비스 체제를 건설하는 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학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기초사업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중점학과 건설은 사업의 핵심으로서 교육, 연구 수준을 개선하는 주요 지표로서, 그리고 전체 교육과 연구 여건 개선의 유효한 수단으로서 작용한다. 공공 서비스 체제는 중점 육성되는 대학을 중심으로 삼아 시설과 자원을 공유하고 전국적인 서비스망을 조직·제공함으로써 전체 대학의 기초설비 수준, 교육 수준 그리고 교육의 효율을 개선

하는데 기여한다는 의미를 띠고 있다. 한편, 211공정의 일반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방침을 웨이위(韋錕) 교육부 차관은 남개대학 예비심사 개막식에서 밝혔다.

“211공정의 목표는 인재양성, 대학수준 제고, 개혁 촉진 그리고 효율 증대에 있다(出人才, 上水平, 促改革, 增效益).”

위에서 언급한 211공정계획의 세 가지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자.

1. 대학 교육 여건의 개선

우선 약 100개 대학을 중점적으로 육성하여 세계 선진 수준의 대학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모범으로 삼아 타대학들이 개혁을 추동하도록 하여 전체 대학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발상으로 기본적으로는 과거 중점대학 육성의 방식과 같다.

교육 여건 개선의 대상으로는 우수 교수진과 경영진 확보, 학과 구조 개선, 교육의 질 제고, 교육·연구 기초설비와 실험실 확보를 통한 교육 환경 개선, 과학 연구와 이의 산업화 촉진, 교육체제와 경영체제의 개혁, 국제 교류·협력 강화 등을 들고 있다.

약 100개 대학의 선정 원칙 및 육성 방침에 있어서는 과거 중점대학 시절과는 달리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경제사회, 과학기술 발전의 요구에 부합하는 주요 학과를 보유한 교육부 직속 대학 중에서 학과가 완비되고 우수한 교수진과 교육, 연구 능력을 갖추고 있는 대학 25개 정도를 우선하여 선정·육성하고자 하였다. 이들 대학을 집중 육성하여 국가의 과학, 기술, 교육, 문화 발전 수준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들 대학 육성에 필요한 경비는 주로 교육부에서 부담하고, 대

학이 소속된 지역의 지방정부도 일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각종 산업부문의 발전에 대응되는 약 50개의 대학을 이 사업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였다. 주로 중앙정부의 각 행정부서 소속으로서 뛰어난 전문성을 지닌 대학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체로 보면 ① 농림, 수리, 에너지, 교통 및 중요 원자재 산업에 필요한 대학, ② 국방, 의료, 위생, 환경 보호 등 공공 사업을 발전시킬 대학, ③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정, 경제, 정치, 법률, 상업, 무역, 외국어, 사범대학 등을 들 수 있다. 소요 경비는 주로 주관 부서에서 부담하고 교육부에서도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지역 발전에 공헌할 약 25개 정도의 대학을 211공정사업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였다. 주로 지방정부 소속 대학으로서 해당 지역의 과학 기술, 문화, 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대학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과거 중점대학 육성시 소외되었던 중서부 지방을 특별히 배려하여 포함시킴으로써 이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성장기지로 작용하도록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경비는 주로 지방정부에서 부담하고 교육부에서도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211공정 대상 대학으로 정식 선정되면 학교장 책임제의 임무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규정한 기간 내에 계획한 중점학과와 목표와 지표, 평가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데 만약 달성하지 못하면 211공정대학의 자격이 취소되고 학교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2. 중점학과의 육성

약 800개 정도의 중점학과를 육성하여 고급 과

학기술인력을 양성하고 과학연구를 추진하는 기지를 확보함으로써 해외에 유학하지 않고도 국내에서 이들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미를 띠고 있다. 우선 국가의 경제, 과학 기술, 국방 역량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학과들을 국가급 중점학과로 선정하고, 이어서 각 행정부서와 지방정부에서 필요한 학과를 성·부급(省·部級)학과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대학에 설치된 박사 학위 수여학과나 석사 학위 수여학과 중에서 선정하는데, 소수의 전문성이 강한 학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211공정의 대상 대학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는 우수 중점 학과가 많은 대학이 211공정사업의 선정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3. 공공 서비스 체제 구축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연구전산망, 고등교육 문헌정보체제, 고가의 실험설비 공유체제 등을 효율적으로 구축하려는 의미를 띠고 있다. 교육연구전산망은 국내 주요 대학간에 전산망을 구축하고 이를 국제 전산망과 연결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고등교육 문헌정보체제는 교육연구전산망을 토대로 전국의 종합문헌정보센터와 일부 전문학과 문헌정보센터, 취업정보센터 등을 연계하고, 나아가 이를 국내외 관련 정보센터와 연결시키려는 구상이다. 고가의 실험설비 공유체제는 유명 대학이 집중된 대도시 중점학과에 현대적인 실험 설비나 기기를 집중시킨 후 이를 모든 대학과 관련기관에 개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직까지는 교육에 투자할 여유가 부족한 중국으로서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중복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도 함께 두고 있다. 신규로 시설 설비를 도입할 때 미화 5만 달러 이상의 설

비는 한 학교에 한가지만 두고, 20만 달러 이상의 장비는 같은 지구 내에서는 중복 도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Ⅲ. 211공정사업의 추진 경과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211공정 사무소'를 설치하여 주관하도록 하고, 별도로 '211공정 부서간 조정소조(調整小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후자는 대상대학을 정식 선정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삼고 있다. 211공정 대상 대학의 선정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희망하는 대학이 신청한 후 주관 행정부서의 예비 선정을 거쳐 예비 선정된다. 이어서 전문가 심사과정을 거친 후 최종으로 정식 선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선정 후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 개혁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희망 대학에서 자체 평가를 거쳐 주관 부서에 예비 심사를 신청한다.

둘째, 주관 부서에서 예비 심사를 진행한 후 교육부에 예비 선정을 신청한다.

셋째, 교육부는 이를 심사하여 예비 선정을 승인한다.

넷째, 예비 선정된 대학은 '211공정건설항목 개혁안 보고서'를 제출하고 주관 부서에서 교육부에 정식 선정을 신청한다.

다섯째, 교육부에서 전문가를 동원하여 위의 보고서에 대해 심사한다.

여섯째, 선정된 대학의 주관 부서에 정식 선정을 통보하고, 중점 육성 임무를 하달한다.

일곱째, 소요 경비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육성 과정을 감독한다.

〈표 1〉 중점대학과 211공정 초심 선정 대학과의 비교

	종합대학	이공대학	사범대학	농림대학	의약대학	기타	계
중점대학(60년)	13(20.3)	34(53.1)	2(3.1)	3(4.7)	6(9.4)	6(9.4)	64(100)
중점대학(78년)	16(18.2)	54(61.4)	2(2.3)	4(4.5)	5(5.7)	7(8.0)	88(100)
중점대학(81년)	17(17.3)	54(55.1)	2(2.0)	10(10.2)	6(6.1)	9(9.2)	98(100)
211공정(96. 11)	22(23.4)	48(51.1)	6(6.4)	4(4.3)	9(9.6)	5(5.3)	94(100)

자료 : 구자역 외(1999), 『교육개혁 지역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 506

일정에 따라 1994년부터 1996년 말까지 희망 대학의 자체 평가와 주관 부서의 예비 심사가 진행되었고, 1996년 7월부터는 전문가 심사와 정식 선정 절차가 진행되었다.

1. 주관 부서의 예비 심사

먼저 예비 심사할 때의 심사기준을 보면, 당해 대학의 국가 사회 발전에의 공헌도 등 장점과 문제점, 대학 발전의 개혁 목표 및 주요 내용, 우수 교수진 확보 대책, 사회의 요구와 대학의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한 중점학과 육성 목표 및 대책, 경영 체제 개혁 목표 및 대책, 교육·연구 여건 개선 내용 및 가능성, 제반 문제점 및 해결 대책, 기대 효과, 대학 자체 평가 내용의 타당도, 주관 부서의 경비 지원 상황 등을 담고 있어 대학이 주체가 되어 국가가 제시한 방향의 개혁을 강력하게 이끌어 나가 우수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예비 심사 과정을 거쳐 1996년 11월 까지 94개 대학이 선정되었는데 이전의 중점대학 시절과 비교하면 계열, 주관 부서, 지역 분포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

211공정 대상 대학을 이전의 중점대학 시절과 비교하면, 종합대학과 사범대학, 의약대학이 약간씩 증가하고 이공대학과 농림대학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동안의 대학 합병과 명칭 변경, 주관 부서 변경 등으로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어려우나, 1981년의 98개 중점대학과 1996년 11월까지 211공정에 예비 선정된 94개 대학들만을 단순히 비교해 보면 다른 점이 많다. 전체적으로 32개의 대학이 탈락하거나 합병되고 28개의 대학이 새롭게 선정되었다. 종합대학은 1개교가 탈락하고 6개교가 새로 선정되었다. 새롭게 선정된 6개 대학 중 5개(延邊大學, 杭州大學, 安徽大學, 鄭州大學, 廣西大學)는 지방정부 소속이고 1개(暨南大學)는 국가화교사무실 소속이다. 이공대학은 16개교가 탈락(대학 합병으로 인한 감소 2개 포함)하고 10개교가 새로 선정되었다. 합병된 대학을 제외하면 탈락된 이공대학은 모두 중앙 행정부서 소속이고, 새로 선정된 대학은 지방정부 소속이 5개교, 중앙 행정부서 소속이 5개교이다. 이공대학의 비중이 감소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사범대학은 탈락 없이 4개교가 추가로 선정되었는데, 이 역시 주로 지방정부 소속이다. 사범대학이 증가한 것은 9년제 의무교육의 확대 보급으로 교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계 대학은 과거에 정책적으로 중점대학에 선정되었던 대학들 중 7개교가 탈락하고 1개교가 새로 선정되었다. 의약대학은 2개교가 탈락하고 5개교가 추가되었다. 그러나 추가된 대학 중 2개는 군사계

의과대학으로 원래부터 중점 육성되고 있던 대학이다. 의약대학의 증가는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보긴, 의료 수요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타 대학 중에서는 6개의 정법, 예술, 체육 관련 중점대학들이 탈락하고 2개의 재경제 대학이 새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주관 부서 분포도 크게 변화하였다. 1981년의 98개 중점대학의 구성은 교육부 직속이 30개, 기타 중앙행정부서 소속이 61개, 지방정부 소속이 7개였으나 211공정 예비 선정 대학은 교육부 직속이 30개, 기타 중앙행정부서 소속이 44개, 지방정부 소속이 20개로 바뀌었다. 교육부 직속 대학 중 211공정 예비 선정에서 탈락한 대학은 3개의 사범대학과 1개의 인문대학뿐이다. 반면 중앙행정부서 소속 대학은 정부조직 개편과 지방정부로의 관리권 이양, 한 개 부서에서 1~2개 대학만을 선정하려는 정책 등에 따라 크게 감소하였다. 탈락된 대학의 대부분이 중앙행정부서 소속의 단과 대학들이다. 지방정부 소속은 3개교가 탈락하고 16개교가 추가로 선정되어 전체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선정 대학의 지역 분포도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등의 대도시 중심에서 벗어나 허베이(河北), 내몽고(內蒙古), 후베이(湖北), 장시(江西), 광시(廣西)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 소속 대학을 선정할 때는 중서부 내륙지방의 발전에 필요한 대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고 한다.

한편 1999년 말까지의 통계를 보면, 예비 선정 과정을 거친 대학은 1999년 중앙음악대학을 끝으로 101개교에 달하고 있으며 중점학과 수는 602개로 늘어났다. 참고로 602개 중점학과의 분포 상황을 보면, 인문사회계가 62개로 10.3%, 경제·정법계가 57개로 약 9.5%, 기초과학계가 89개로 14.8%, 환경자원계가 42개로 7.0%, 기초산업과 신기

술계가 255개로 42.4%, 의약·위생계가 66개로 11%, 그리고 농업계가 31개로 5%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볼 때 기초산업과 신기술부문의 발전을 매우 중시하여 중점 육성하려 하고 있으며, 기초과학 부문과 실용적인 부문의 발전도 또한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전문가 심사와 정식 선정

1996년 7월부터 9월까지 예비 선정된 대학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정식 선정 작업이 진행되었다. 전문가 심사는 중앙 유관부서와 지방정부의 전문가들로 조직하여 실시하는데, 이 심사는 예비 선정된 대학들이 제출한 '211공정건설항목 개혁안보고서'를 대상으로 삼아 제시한 개혁안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소요 경비도 확보할 수 있는가 등의 준거에 비추어 평가하는 과정을 거쳤다. 1996년 8월에 베이징대학(北京大學)과 칭화대학(清華大學)이, 그리고 1997년 1월에 푸단대학(復旦大學)이 심사를 거쳐 국가계획위원회의 비준을 받았다.

이 작업들은 비공개로 추진되었는데 1996년 말까지 50개 대학이 앞서의 개혁안 보고서를 제출하여 정식 선정을 신청하였고, 이 중 20개 대학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1997년 말까지 18개 대학이, 1998년 말까지 61개 대학이 정식 선정되었다. 1999년에는 다시 31개교를 선정하여 211공정 정식 선정 대학은 총 92개교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전문가 심사를 거쳐 탈락한 대학은 아직까지 한 건의 사례도 없는 실정이다. 예비 선정 후 아직 정식 선정되지 않은 대학은 경비의 부족으로, 주관 부서의 적극성 여부에 따라 정식 선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3. 경비 지원

211공정에 소요되는 경비는 중앙정부 특별회계, 기타 중앙행정부서와 지방정부 등 대학 주관 부서의 특별회계, 대학 자체조달경비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중앙행정부서와 지방정부의 지원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착수비 정도를 지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가 직접 투자한 액수로 보면, 211공정사업은 건국 이래 고등교육 육성사업 중 최대 규모이다. 1994년에만 중앙정부에서 3억 원의 특별회계를 집행하였고, 허베이성(河北省) 1억 원, 구이저우성(貴州省) 1.2억 원 등 각 지방정부와 주관 행정부서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경비를 지출하였다. 1995년에도 중앙정부 특별회계 3.5억 원이 지출되었다.

이들 중앙정부 특별회계는 국가 계획위원회와 재정부가 6.5 : 3.5의 비율로 공동 부담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각 대학과 대학 보유 중점학과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원칙적으로, 국제 선진 수준으로 육성하는 2개 대학은 전체 소요 경비의 75%를, 교육부 직속대학과 기타 중앙정부 소속 대학은 50% 정도를, 지방정부 소속 대학은 25% 이하를 중앙정부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경비는 주관 부서와 대학 자체에서 조달하도록 하고 있다.

총체적으로 살펴보면, 1999년까지 인민폐로 110억 3,70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이 중 66.4%에 해당하는 73억 3,200만 원이 시설·설비부문에 투자되었다.

시설·설비 투자분 중에서 중앙정부가 지출한 액수는 27억 5,500만 원으로 37.8%에 달하고 있다. 2000년 8월까지의 총 투자 금액은 약 150억 원으로 2000년 한 해에 약 40억 원에 가까운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IV. 211공정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1. 성과

211공정사업은 중국 고등교육 개혁의 일부만이 아니라 21세기를 이끌 대학을 중점 육성한다는 의미를 띠고 있으며, 기존의 고등교육 구조를 대대적으로 재조정하여 중국 경제사회 발전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중국 교육부(www.moe.edu.cn)가 밝히고 있는 성과를 중심으로 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고등교육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연구의 질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경영체제를 수립하였다. 211공정사업은 직접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지표로 삼아 추진함으로써 대학의 연구의 질을 제고시켜 생산력 향상으로 탈바꿈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경영의 효율성도 대폭 제고시켰다.

과거에는 대학별로 소관 부서가 교육부, 중앙부서, 그리고 지방으로 나누어져 각자의 구상대로만 운영함으로써 상호간 연계가 되지 못해 중복 투자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예컨대, 계획경제시대에는 중국의 대학은 계열별로 분화되어 소관 부처별로 계획경제지침에 따라 지원하고 관리하는 체제이었다. 석탄대학은 석탄부에서 경비를 지원하고 관리하여 교육부가 관여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번 211공정사업에서는 기존의 소관체계를 조정하여 중앙, 부서, 지방이 연합하여 211공정사업 대상 대학의 개혁을 추동하는 방식을 취하여 이들 문제를 해소하였다는 것이다. 통계상으로 중앙부속대학으로서 지방의 경비 지원을 받은 액수는 인민폐 약 15억 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어 중앙부서와 지방이 긴밀히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음을 밝

하고 있다.

둘째, 학과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인재양성의 질을 높이고 문제해결력도 증대시켰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 대학 중점학과의 88%에 해당하는 602개 중점학과를 21세기 중국 사회의 요구에 따라 재선정하여 지금까지 64억 원을 집중 투자하여 육성함으로써 사회에서 요구하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게 되었으며 중국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었다. 사회 요구에 부응하여 학제간 결합을 이끄는 학과들을 새로이 집중 육성하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셋째, 고등교육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영도하는 기지가 새롭게 건설되고 있다. 211공정사업을 통해 약 150억 원이 집중 투자됨으로써 시설·설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고등교육 투자경비 중 211공정사업 대상 대학에 연구비의 72%, 시설비의 54%, 도서비의 31%가 투자되었다. 또한 국가 중점 실험실의 96%가 이 사업 대상 대학이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 서비스 체계인 교육연구전산망(CERNET)과 문헌정보망(CALIS)도 이들 대학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 시설은 거시적으로 국가가 조정 통제하는 상황 속에서 시장지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활용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또한 이 사업 대상 대학들이 전국 대학 박사과정의 84%, 석사과정의 69%, 학사과정의 32%를 점유하고 있어 고급 두뇌를 중점 양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문제점

첫째, 211공정계획은 중국 대학의 10%에 해당하는 약 100개의 대학을 선정하여 선진 대학으로 집중 육성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선정 기준에 대한

불만이 계속 제기되었다. 특히 기존 중점대학들이 상당 수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는 교육 환경이 선정된 대학보다 우수하면서도 소관 부서와 지역별로 쿼터를 두다 보니 지방 소속의, 교육 환경이 미흡한 대학이 선정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투자가 일부 대학에 집중됨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들 수 있다. 211공정사업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선정된 일부 대학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선정이 되지 못한 대학들의 불만이 야기될 수밖에 없었다.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견지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평등이념을 경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기는 211공정사업의 추진도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선정이 되지 못한 일반 대학의 발전을 추동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소요경비 투자의 한계와 주관 부서별 재정 부담의 한계로 인한 문제를 들 수 있다. 2000년 8월까지 211공정사업에 약 150억 원이 투자되었다. 이 액수로는 101대학 602개 중점학과의 교육 여건을 세계 선진 대학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은 절대 부족하다. 그래서 한정된 투자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계획된 소요 경비를 조달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다. 211공정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2/3 이상을 주관 부서와 대학이 자체적으로 조달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관 부서별로 재정 부담의 차이가 많아 제대로 조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정부 소속 대학들의 어려움은 더욱 큰 실정이다.

넷째, 세계 선진국가의 대학으로의 육성 목표와 중국의 현실 요구와의 괴리 문제를 들 수 있다. 이 사업 대상 대학 중 일부를 세계 일류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 중국의 사회발전 수준으로 볼 때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사회 현실의

요구는 세계 일류를 요구하지 않는데도 대학만 세계 일류로 육성한다는 구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V. 향후 전망

실제로 제 1기(1995~2000년) 때는 대상 대학과 중점학과를 선정하고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제 211공정사업은 제 2기(2001~2005년, 10차 5개년 계획)에 접어들었다. 이 시기에는 제 1기에서 추진한 성과와 문제점에 바탕하여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개혁을 가속화하고 중점학과 건설에 핵심을 두며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하고 있다. 이로써 고등교육 체계를 더욱 합리화하고 역할을 제고하여 중국 경제사회 발전의 동력원 구실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중점학과를 건설하게 육성하며 교육·연구 여건을 집중적으로 개선하여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의 성과를 제고하여 이들 중 일부 대학이 세계 선진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계획이다. 또한 이들 대학이 고급신기술산업 발전의 기지가 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도 두고 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산망을 확충하고 시설설비를 확충하여 교육연구 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대학원 단계의 교학자원을 확충하여 고급두뇌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도 두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211공정 대상 대학들에 대한 평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1년 4월

28일에는 대상 대학인 난징(南京)대학이 '교육부 211공정전문가조'의 평가를 받았다. 베이징대, 중국과학기술대 총장 등 13명으로 구성된 전문가조는 1994년에 예비 선정된 후 2001년까지의 개혁 실적을 평가하여 실적을 확인하고 평가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하였다. 당시까지 3억 2,000만 원이 투자되었는데 마이크로 구조물리 및 응용, 컴퓨터 프로그램 기술 등 11개 중점학과 건설에 핵심을 두고 추진한 사업에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 수준도 높아졌으며 기술산업화도 제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4]

〈참고 문헌〉

- 구자역 외(1999). 『교육개혁 지역연구』. 한국교육개발원.
『中國教育年鑑』. 인민교육출판사. 1995~2001년판
곽복창 외(1996). 『中國教育改革發展簡論』. 베이징 : 교육과학출판사.
채극용(1997). 『我國高等教育改革及其綜合效益分析』. 베이징 : 인민교육출판사.

최영표

대만 국립정치대학 대학원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한국 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중국동북사범대학 객원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 동신대 중국어학과 교수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한국중국교육학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중화중앙교육행정제도 비교연구」,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도입과 중국의 교육개혁」 외 다수가 있다.